

2011.05.09 미래정책연구실

□ 러시아와 인도, 곡물 수출 재개 기대

1. The Wall Street Journal(2011.05.03) 주요 내용

- 최근 밀가격 급등과 더불어, 러시아와 인도의 곡물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.
 - 그러나 수출량이 적고 미국과 유럽의 작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, 실제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- 러시아 정부가 이르면 7월초 곡물 수출을 다시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조성됨에 따라, 러시아 곡물 딜러들이 수출에 용이하도록 항만 근처로 재고분을 옮기기 시작함.
 -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 곡물 수확량이 평년 대비 1/3 수준인 6,300만 톤에 그쳐 곡물 수출을 제한해왔으나, 올해 곡물 생산량이 9,00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, 곡물 생산자들이 수출제한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 - 러시아 농업시장연구소(IKAR)의 전망 담당자 드미트리 릴코는 '곡물 수확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, 곡물거래업체들이 수출 재개에 대비하여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'고 언급함.
- 인도에서도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5년만에 곡물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됨.
 - USDA는 올해 인도의 밀 생산량은 8,420만 톤으로 전망되며, 인도 정부가 200만 톤 이상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함.
 - 지난해 러시아 가뭄과 잇따른 자연재해, 수요 상승으로 인해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, 이 같은 판매적기를 러시아와 인도가 놓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- 그러나 러시아와 인도의 곡물 수출이 재개되더라도, 세계 곡물가격이

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.

- 라보뱅크의 애널리스트인 에린 피츠패트릭은 양국 모두 식량안보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, 인도와 러시아 모두 선거 기간이므로,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2008년과 같이 곡물 수출을 급증시켜 세계 곡물가격을 폭락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.
- 또한 수출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두 자리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어, 수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
- 올해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, 러시아와 인도의 수출 재개는 미국과 유럽지역의 세계곡물시장 공급 감소분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- 아그리머니의 제임스 던스터빌 애널리스트는 '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국가의 곡물 수출 재개는 유럽 곡물가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'이라고 전망함.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